

새로운 감동 전한 어린이책 한마당

‘책읽는교육사회실천협의회’ 주최 '98 어린이 책잔치 이모저모



· 유아용 그림책 1백권과 초등학교 각 학년별로 1백종씩, 모두 7백종이 전시됐다(왼쪽 위).
· 아이와 함께 찾아온 학부모가 많이 좋은 책에 대한 열기를 보여줬다(오른쪽).
· 우리 창작그림책에서 고른 원화 50여점이 전시돼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했다(가운데).
· 《세상이 생겨난 이야기》의 작가 김장성씨를 비롯해 10명의 작가사인회도 열려 어린이 독자의 호응을 받았다(아래).

이태수, 《누구야 누구》의 권혁두 등 화가들이 나와 저자사인회도 열었다. 또 25일에는 재미미주 대표인 이호백씨가 <그림책의 즐거움을 통한 어린이 정서교육>이라는 주제로, 어린이도서연구회 이사인 김중철씨가 <발달 단계에 따른 어린이책>의 주제로 강연회도 가졌다.

행사장은 좋은 어린이 책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로 북적대 좋은 책 목록의 필요성을 확인시켰다. 아이와 함께 행사장을 둘러보던 이옥선씨는 “동네 서점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책들을 볼 수 있어 유익”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행사에 찾아온 어린이와 부모에게는 《나무꾼과 호랑이형님》(한림출판사)·《지구를 살리자》(창작과비평사) 등 출판사별로 준비한 책과 그림엽서 등이 한정부수로 제공됐다.

전국어린이전문서점연합회(대표 이가을) 후원으로 열린 이 행사에는 모두 40개 출판사가 참여했다. 추진위원회측은 어린이 좋은 책 목록 5만부를 발행하여 전국 초등학교에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이후 연말에서 내년 초에 걸쳐 중고등학생에게 권하는 《청소년 좋은 책 목록》을 발간하고 ‘청소년 책잔치’도 열 계획이다. — 김연수 기자

책읽는교육사회실천협의회 추진위원회(대표 김흥규)는 결성식 첫 행사로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이화여대 교육문화관 로비에서 책교실이 가려뽑은 어린이 좋은 책을 전시·판매하는 '98 어린이 책잔치를 열었다.

YWCA·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어린이도서연구회 등이 참여한 ‘책교실’은 창작동화·세계명작·과학·환경·위인·역사·시·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유아용 그림책 1백권과 초등학교 각 학년별로 1백권씩, 모두 7백권의 어린이 좋은 책을 간주했다.

주최측은 이들 책을 각 학년에 맞게 나눠 전시해 행사장을 찾은 어린이와 학부모가

손쉽게 필요한 책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승각의 《오소리네 꽃밭》, 정순희의 《내 짝꿍 최영대》 등 우리 창작그림책에서 고른 원화 50여점도 전시돼 어린이들은 새로운 느낌과 감동을 맞볼 수 있었다.

행사장 옆 강당에서는 《백두산 이야기》·《순이와 어린 동생》·《세상에서 제일 힘든 수탉》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잘 알려진 그림책을 효과음악과 함께 직접 구연하면서 보여주는 멀티 슬라이드 쇼를 6차례 열어 큰 인기를 끌었다.

행사 내내 로비 한쪽에서는 《오빠는 사춘기》의 채인선, 《날아라 된장잠자리야》의 조성자 등 동화작가와 《심심해서 그랬어》의

만남

“책읽는 문화 없이 미래도 없다”
책교실 추진위원회 대표 김흥규 교수



어린이들이 마음껏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는 ‘책교실’이 생겼다. 10여개 사회단체가 올바른 독서교육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책읽는교육사회실천협의회(이하 책교실)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것. 추진위원회 김흥규 대표(고려대 국문학과)는 책교실의 결성 목적을 독서·출판계의 위기에서 찾았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책을 멀리합니다. 자극적인 대중문화는 너무 많은데, 좋은 책과 그 정보, 책을 읽을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모자라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출판문화의 기형화도 한몫합니다. 이대로 가면 10~20년 뒤, 특특히 대가를 치를 겁니다.”

어린이·청소년 독서교육과 출판문화의 위기는 곧 다음 세대를 위한 지적 생산의 위기라는데 공감했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나선 것이라는 설명이다.

책교실에는 박영숙(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장)·최장집(고려대 교수)·김동완(KNCC 총무)·법타(대구불교방송 사장)·함세웅(구의동 성당) 등이 고문으로, 김선덕(YWCA 어린이부장)·박성규(홍사단 사무총장)·조월례(어린이도서연구회 사무총장)·황경숙(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회장)·이가을(전국어린이전문서점연합회 대표)·이수호(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등이 실행위원으로 참여했다.

“사회 각계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책교실은 그 심지 노릇을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좋은 책 선정에 도움이 되도록 작은 도서관을 마련, 각 학년에 맞는 좋은 책을 가려뽑고 여론을 듣는 정책토론회도 열 예정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독서문화의 질적 개선에 있습니다. 책 읽는 문화를 정착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기 때문입니다.” <김연수>